2003년 7월 20일

한·영 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말씀

먼저 블레어 총리 각하 내외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럽의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한·영 관계의 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신 블레어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양국관계 증진방안, 그리고 주요 국제문제를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평소 나는 국제사회에서 탁월한 식견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오신 블레어 총리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돈독한 유대와 신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더 굳게 다져진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

자대화에 조속히 호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중심국가인 영국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감에 있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영국은 6·25전쟁 때 연인원 5만 7천명의 병력을 참전시켰고, 4,300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각별한 우방국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러한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우호와 실질협력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 우리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합의하기로 의제는 설정되어 있었으나 핵문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찬 때 그렇게 마저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근절, 그리고 이라크 재건을 위한 지원 등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